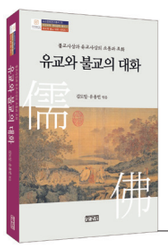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6~3/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조계종 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니까야로읽는금강경	이중표 역해	불광출판사
2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11) 마음을 만드는 뇌의 구조	문일수	운주사
3	부처님의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8	비움과 금강경:근본불교와 대승에서의 공	시현 번역과 해설	사유수
4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 학술원 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9	불교문화(조계종신도교재4)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5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10	불교사의 이해(조계종신도교재3) 역사	이만 외	조계종출판사

책세상

불교·유교, 대립만 했을까… 논쟁하며 성장했다



유교와 불교의 대화
김도일 · 유용빈 엮음
도서출판 장경각/ 3만원



백련불교문화재단은 3월 6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유교와 불교의 대화' 출간기자간담회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장, 백련불교문화재단 사무국장 일엄 스님과 이사장 원택 스님, 김도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과 유용빈 연구원.

성철사상硏 · 성균관대 유교문화
2021년 공동세미나 논문들 보완
중국불교 · 유교 대화 여정 조명
불교 · 유교 관계 연구 서막 열어
대화와 소통 관련 연구 지속 예정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과 중국, 일본 동북아 삼국의 사상과 문화의 중요한 축은 불교와 유교에 기반한다. 불교와 유교는 동북아 삼국의 역사 속에서 정치 이데올로기로 작동했으며, 민중들의 풍습, 의례에 영향을 끼쳤다. 그랬기에 불교와 유교는 대화와 소통하며 교류하기도 때로는 논쟁하며 자기 사상의 우월성을 부각하려하기도 했다. 끊임없는 대화와 논쟁 속에서 불교와 유교는 서로에게 영향을 줬고, 사상적 변주로 이어졌다.

그렇기에 도서출판 장경각(대표 원택 스님)이 근간한 〈유교와 불교의 대화〉는 주목할 만한 연구서다.

이 책은 지난 2021년 11월 26일 성철사상연구원(이사장 원택 스님)과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소장 김도일 교수)가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의 소통과 조화'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세미나의 성과물들을 바탕한 것이다.

성철사상연구원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는 '유교와 불교의 대화'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총론과 명말청조에 이뤄진 불교와 유교의 대화 양상을 보완했다.

〈유교와 불교의 대화〉는 유교와 불교의 교류 양상을 '격의'와 '융합'을 화두로 삼아 거시적 관점에서 다섯 부분으로 나눠 조망했다.

첫째 부분은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유교와 불교의 대화 양상을 개괄하는 총론인 '중국 역사를 통해 본 유교와 불교의 대화'다. 두 번째 부분은 불교의 중국화 초기부터 당대(唐代)에 이르는 불성 개념을 통한 유불융합에 대한 탐구로, 석길암의 '불성 개념의 중국적 변용 과정'이다.

세 번째 부분은 송·명대에 심화된 유불융합에 주목하는 내용들로 △이원석의 '유자휘에게 끼친 대혜종고의 영향' △이해임의 '장구성은 대혜종고에게 무엇을 배웠는가' △변희욱의 '송대의 간화와 격물' △정상봉 '주희가 본 육구연의 심학과 선' △김진무의 '조사선과 육왕 심학의 교섭관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네 번째 부분은 명말청초 불교계의 격의 양상을 고찰하며, 중국학자 진영혁(陳永革)의 '중국 전근대 유불 관계: 만명 불교의 양지심학론', 유용빈의 '지욱 〈논어점정〉의 이불해유에 대한 고찰' 등이 게재됐다. 다섯 번째 부분은 청말민초의 새로운 유학에서 시도된 유불융합에 대한 탐구로, 김제란의 '현대신유학에 나타난 유학·불교 융합의 방식들: 웅십력, 당군의, 모종삼 3인의 철학을 중심으로'가 수록됐다.

'불교와 유교의 대화시리즈'의 첫 권인 이번 연구서는 불교와 유교라는 두 사상 간의 대화와 소통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면서 두 사상의 관계를 조명하는 연구의 서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용빈 성균대 유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유교와 불교의 대화 양상을 동아시아의 사상사적 맥락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는 우리 학계에서 흔하지 않았다"면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유교와 불교 간의 상호작용과 그 영향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오랜 갈등 관계였던 불교와 유교가 어떻게 대화하고 논쟁했는지를 살펴보면 현재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도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은 "불교와 유교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을 살펴보면 서로를 보완하고 성장시키는 측면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교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 준다"고 강조했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불교와 유교라는 두 전통은 2000년에 걸친 세월 동안 치열한 갈등과 대립 속에 있었지만 그 내면을 보면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갔음을 알 수 있다"면서 "선인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정신을 되살린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립과 갈등, 분열과 투쟁이라는 사회적 병을 치유하는 데 양약이 될 지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책이 차이를 넘어 화합과 공존의 지혜를 찾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이 같은 대화가 반향을 일으켜서 제2·3의 대화모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두 연구기관은 대립과 소통, 조화와 공존의 흐름을 조명하는 연구를 시리즈로 기획해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책 속으로

불성(佛性)과 인성(人性)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에서 일어난 불교와 유교의 교섭 과정에서 불교적 사유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불성이 주목되지만, 그것이 인도불교 본래의 사유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동일한 관점에서 불교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유교적 사유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인성을 주목하지만, 인성이라는 개념이 본래의 유교적 사유를 대표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 역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이 중국에서 불교와 유교의 교섭을 보여주는 접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며, 교섭 이후의 전개에서 각각의 사유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없다.

– '불교적 사유와 유교적 사유의 융합과 간격' 中

북송대 유학자들은 선사와 자유롭게 교류하며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은 담론을 나누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대혜와 장구성이다. 두 사람 모두 주전론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이를 빌미로 유배당했다. 이들은 진회(秦檜)를 중심으로 형성된 화친론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혜는 성리학에 대한 깊은 조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정자의 제자들이 물격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듯하다. 이는 대혜가 경산에서 장구성과 함께 격물·물격에 대해 담론하는 장면에서 엿볼 수 있었다.

– '장구성은 대혜종고에게 무엇을 배웠는가' 中

세계적 석학이 정리한 空사상 공부 입문서



공공부
가지야마 유이치 글
김성철 옮김
김영사/ 1만 6800원

'공(空)'은 초기불교에서부터 반야경, 중관, 유식 및 티베트불교와 여래장 그리고 동아시아 대승불교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다. 공사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대승불교를 바르게 알 수 있고, 선종의 기본경전인 〈금강경〉의 대의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의 저명한 학자 가지야마 유이치(梶山雄一, 1925~2004) 전 교토대학 교수의 저서 〈공 입문(空 入門)〉은 1992년 일본 슌주샤(春秋社)에서 처음 출간된 후, 독자들의 애정어린 요청에 2018년 〈스터디즈 공(スタディーズ空)〉으로 제목만 바꿔 재출간됐다. 2007년 한글로 번역됐다가 곧 절판됐지만, 불교를 공부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고책이나 복사본을 구해서도 보아야 하는 책으로 뒤늦게 호평을 받았다.

이번에 발간한 〈공 공부〉는 번역을 더욱 정확하게 다듬고, 어려운 불교 용어와 주요 인물에 대한 설명을 각주로 보충하여, 독자가 난해한 이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판 발행 후 30여 년 동안 진전된 학문적 연구 성과를 역자 후기에 더했다. 대승불교의 재가기원설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티베트불교 여래장사상 연구에 기반한 자공(自空)·타공(他空)의 공사상 분류와 그에 따른 영향을 소개해 30년간의 학문적 연구 흐름을 반영함으로써 공상상을 제대로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했다.

이 책은 불교의 핵심 교리인 무아, 연기, 공의 관계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한 공사상 입문서로, 불교 입문자뿐만 아니라 용수의 공사상과 대승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신중일 기자

종교문해력 총서

"왜 다시 종교인가?"
붓다·예수·무함마드·소태산에게 묻는
인생의 큰 고민과 가장 적절한 해답!

'이해 없는 믿음'은 이제 그만!
종교가 어려운 현대인을 위한 종교 감수성 입문서

'다름과 공감하는 시선'
종교문해력 총서

종교문해력은 '맹목적 믿음'이 아닌 '이성적 이해'의 측면에서 종교를 재해석하고 소통하는 능력으로, 올바른 종교의 선택과 바른 신행의 지향점을 제공한다. 종교문해력 총서는 종교학·붓다·예수·무함마드·소태산에게 들을 수 있는 인생과 가치관에 관한 가장 적절한 해답이 될 것이다.



01 종교 이후의 종교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 | 성해영 지음 | 272쪽 | 18,000원
02 미처 몰랐던 불교, 알고 싶었던 붓다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 | 강성용 지음 | 344쪽 | 20,000원
03 길 위의 그리스도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 정경일 지음 | 272쪽 | 18,000원
04 무함마드에 대한 우리의 오만과 편견에 관하여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 | 박현도 지음 | 392쪽 | 22,000원
05 일상에서 찾은 원불교의 영성 소태산이 밝힌 정신개벽의 길 | 장진영 지음 | 336쪽 |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